

자동차 명당 좌석은 어디일까?

승용차 좌석중 사고 발생 시 다른 좌석에 비해 더욱 안전한 '명당 좌석' 이 따로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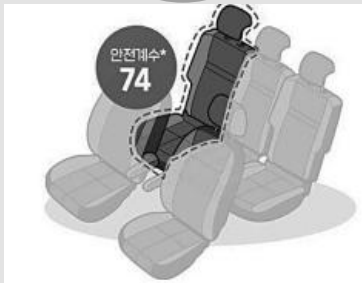
한국의 '자동차시민연합' 에 따르면 적절한 보호 장구와 안전띠 착용 상태에서 승용차의 경우 가장 안전한 자리는 안전계수 62인 가운데 뒷좌석이다(운전석 안전계수를 100으로 하고 수치가 낮을수록 안전하다). 이어 운전자 뒷좌석(73.4), 동반자(조수)석 뒷좌석(74.2), 동반자석(101)이다.

'미국 운수성 교통안전국' 자료에 따른 사고 피해가 많은 좌석도 동반자석과 그 뒷좌석으로 가장 위험한 좌석으로 드러났다.

한국인들에게 VIP석으로 인식돼 있는 동반자 뒷좌석은 좌회전 충돌 가능과 위험성이 동반자석 다음으로 높다. 반면 안전계수가 가장 낮은 가운데 뒷좌석의 경우 정확하게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자리로 분류됐다. 특히 앞좌석 에어백은 어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어린이에게 매우 위험한 좌석이다. 만약 여성이 아기를 안고 탄다면 가장 위험한 좌석은 동반자석이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좌석은 운전자 뒷좌석이다.

이미지=삼성화재다이렉트

3위
동반자석
뒷좌석



VIP석이라고도 불리는 이 좌석도 조수석과 마찬가지로 돌발 상황 시 운전자의 무의식적인 핸들 조향으로 조수석만큼 위험이 큰 좌석이다.

1위
가운데
뒷좌석



안전벨트만 확실하게 착용하면 충돌 사고 발생 시 가장 안전한 좌석이다. 반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좌석이다.

2위
운전석
뒷좌석



정면 충돌 발생 시엔 운전석에서 1차로 충격을 흡수하여 비교적 충격이 덜 가해지고, 운전자의 무의식적 핸들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5위
동반자석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는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자신의 반대 방향으로 틀기 때문에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좌석이다.



안전벨트 미 착용시
사상 가능성 90% 이상 증가

한국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승용차 앞뒤 좌석에 성인 및 어린이가 탑승한 상태에서 시속 48 km(약 30마일)로 고정벽에 정면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시험을 한 결과,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 및 중상 가능성이 최고 9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좌석 위치보다 안전벨트를 착용했느냐가 사고 발생 시 더 안전을 지켜준다는 의미이다.

4위
운전자석



도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운전자 좌석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빠른 대처는 가능하지만, 전방 충돌 사고 발생 시에 가장 크게 다칠 수 있다.

www.myevergreenschool.com

“에버그린 프리스쿨 임니다”

GOD IS LOVE | JOHN 4:19

evergreen

PRESCHOOL • KINDERGARTEN

SINCE 2012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588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670.9687